

평택보호관찰소

○ 매체 : 경인매일(2025. 1. 9.)

○ 제목 : 평택준법지원센터-농협, '사랑의 쌀' 전달식 개최

평택준법지원센터-농협, '사랑의 쌀' 전달식 개최



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와 농협 안성시지부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 나눔을 실천했다.

평택준법지원센터는 9일 박상문 소장과 김형수 농협 안성시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'사랑의 쌀 등 원호물품 전달식'을 가졌다고 밝혔다.

이번 전달식은 지난 한 해 평택준법지원센터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00여 명을 투입해 일손이 부족한 안성 지역 농가를 지원한 데 대해 농협 측이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.

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는 9일 박상문 소장과 농협 안성시지부장(김형수)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쌀 등 원호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.

농협 안성시지부를 비롯해 안성마춤·고삼·양성·미양농협 등 관내 5개 농협이 십시일반으로 마련한 쌀 40포대(400kg)와 콩 20박스(80kg)가 이날 센터에 전달됐다.

기증된 물품은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.

김형수 농협 안성시지부장은 "평택준법지원센터의 봉사자 지원에 감사드린다"며 "이러한 지원이 안성지역 농가인력난 해소에 큰 힘이 됐고 농민들도 만족하고 있다"고 말했다.

박상문 소장은 "농촌지역의 일손 부족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, 3월부터 본격적으로 농번기가 시작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인력을 지원하겠다"고 전했다.